

보도시점 2026. 7. 22.(수) 10:00 배포 2026. 07. 22.(수) 09:00

「2026 경제교육 국제 콘퍼런스」 개막

- ‘AGI시대 경제교육 재구성, 답을 가르치는 교육에서 삶을 설계하는 교육으로’
- 미국·유럽·아시아 주요국 경제교육 사례 공유…AI시대 경제교육 방향 모색

재정경제부는 KDI와 공동으로 7월 22일부터 23일까지 이틀간 앰버서더 서울 풀만호텔에서 'AGI 시대 경제교육의 재구성-답을 가르치는 교육에서 삶을 설계하는 교육으로'라는 주제로 「2026 경제교육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는 허장 재정경제부 제2차관, 김세직 한국개발연구원 원장, 박재완 경제교육단체협의회장을 비롯해 OECD, 미국, 네덜란드, 말레이시아 등 해외 경제교육 관계자와 국내 경제교육단체 관계자, 교사·강사 등 350여 명이 참석한다.

허장 재정경제부 제2차관은 개회사에서 생성형 AI를 넘어 AGI 시대로 접어들며 일자리와 소비, 자산 형성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고 있다며, 경제교육이 학생과 시민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선택하며 자신의 삶을 설계해 나갈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허 차관은 이번 콘퍼런스가 AI를 활용한 새로운 교수법과 세계 각국의 경제교육 경험을 공유하고 발전시키는 뜻깊은 교류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세직 KDI 원장은 환영사에서 변화하는 시대에 필요한 경제교육 정책 아이디어를 연구하고, 미래세대가 창조형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경제교육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콘퍼런스 첫날인 22일에는 국제세션이 열려 '생성형 AI 시대 교육의 근거와 시사점'을 주제로 OECD 교육연구혁신센터 스테판 뱅상-랑크랭 부센터장이 기조강연을 진행했다. 이어 미국, 네덜란드, 말레이시아, 한국 등 주요국의 사례를 통해 AGI 시대 경제교육의 현주소를 살펴보고, 각국의 성과와 과제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진다.

2일 차인 23일에는 국내 세션이 이어진다. 오전에는 '경제교육이 다시 세워야 할 기준'을 주제로 강연과 그룹 활동이 진행되며, 오후에는 학교 현장과 민간에서 AI를 활용한 경제·금융교육 최신 사례가 분과별로 발표될 예정이다.

행사 기간동안 경제교육 교구재와 AI 기반 교육 콘텐츠를 소개하는 전시 부스도 운영된다. KDI와 지역경제교육센터, 경제교육단체협의회 회원기관의 교육 자료와 프로그램이 전시되며, OECD와 CEE(미국경제교육협의회)의 교육용 AI 콘텐츠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도 운영한다

이번 콘퍼런스는 국내외 경제교육 전문가 및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AI 전환 시대에 걸맞은 경제교육의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마련됐다. 재정경제부는 앞으로도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국민 모두가 변화하는 경제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경제교육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2025년 '경제교육, 변화를 읽고 미래를 설계하다'라는 주제로 JW메리어트에서 「경제교육 국제 콘퍼런스」 처음 개최함('25.7.23~24.)

담당 부서	기획조정실 경제교육정책팀	책임자	팀 장	이경숙 (044-215-2550)
		담당자	사무관	이소영 (holly90@korea.kr)

